

Circle, 스테이블코인에서 국가간 지급결제 인프라로

신상희 수석연구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인 Circle이 국가간 지급결제 인프라인 ‘Circle Payment Network’ 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송금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통신·결제 시스템이다. 환거래은행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국가간 지급결제 절차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할 경우 송금 소요시간을 당일로 단축하고 비용 절감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도 혁신의 물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 스테이블코인 USDC(USD코인) 발행자인 Circle이 국가간 지급결제 인프라인 ‘Circle Payment Network’(이하 ‘CPN’) 추진 계획을 발표[1]

- CPN이란 금융기관이 자본이동 규제를 준수하면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국가간 지급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통신·결제 시스템
 - 개인·기업은 CPN에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송금, 해외결제, 무역대금 결제 등 다양한 국가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실시간·저비용으로 이용 가능
- ’25년 4월 Circle이 CPN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한 이래 시범운영(pilot) 중으로 금융기관, 핀테크, 가상자산 사업자 등 28개사가 CPN에 참여 중
 - 은행 파트너사는 Santander, Deutsche Bank, Société Générale, Standard Chartered로 국가간 지급결제 인프라 설계 및 구축에 대한 자문을 제공

■ CPN은 환거래은행 체제를 블록체인 인프라로 대체함으로써 국가간 지급결제 절차를 개선

- (현재) 국가 간 지급거래는 송금인 은행과 수취인 은행 간 다수의 환거래은행 (correspondent bank)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비용상의 비효율이 발생
 - 환거래은행 간 운영시간 차이, 국가간 자본이동 규제 점검 절차의 중복 등으로 국가간 지급결제는 통상 1영업일 이상 소요되며 지급액의 약 12%가 비용으로 발생
- (CPN) 송금·수취 금융기관이 직접 국가간 지급거래를 처리하므로 시간·비용 절약
 - 송금 금융기관은 CPN에서 최적 환율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수취 금융기관)을 탐색하고, 법정통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on-ramp)하여 송금 수행
 - 수취 금융기관은 송금받은 스테이블코인을 현지 법정통화로 환전한(off-ramp) 다음 수취인 거래은행 계좌로 지급

[1] “Circle Payment Network White Paper”, Circle, 2025.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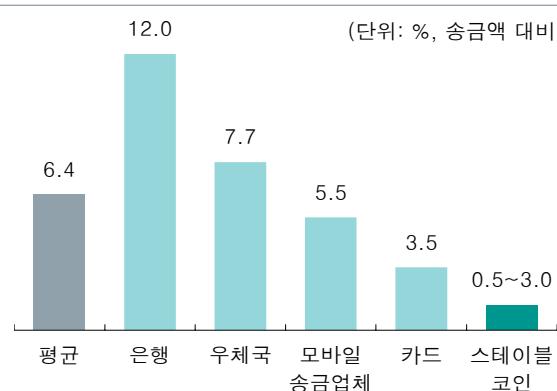
■ Circle은 다양한 국가간 지급결제 관련 기업들이 거래하는 생태계로서 CPN을 구상

- CPN의 운영·참여자는 ① Circle, ② CPN 회원(금융기관·가상자산 사업자), ③ CPN 서비스제공자(금융·非금융기관)로 구분 가능
 - (Circle)** CPN의 운영자로서 규정·표준을 제정하고, 참여기관의 자격(규제준수 여부 등)을 검증 및 모니터링하며, CPN의 기반 인프라를 운영
 - (CPN 회원)** 자본이동 규제 및 CPN 규정·표준에 따라 국가간 지급거래를 수행
 - (CPN 서비스제공자)**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CPN 회원의 거래를 지원하고, 가상자산 지갑, 수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 CPN에서 통용되는 스테이블코인도 Circle뿐 아니라 제3자 발행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
 - 현재 CPN이 지원하는 스테이블코인은 Circle이 발행한 USDC 및 EURC지만, 향후 서비스 생태계가 확장될 경우 그외 스테이블코인도 지원할 계획

■ 국내 금융기관도 국가간 지급결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고려할 필요

-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진전되며 이를 활용해 국가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 XRP(리플)의 발행사인 Ripple은 가상자산 기반의 국가간 지급결제 시스템인 'RippleNet'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표하고 Circle 인수를 시도함으로써 국가간 지급결제 분야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
 - 日 메가뱅크(MUFG·SMBC·Mizuho)의 'Project Pax'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환거래은행 구간을 대체함으로써 해외송금 절차를 개선하려고 시도
- 우리나라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회사가 해외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국가간 지급결제에 활용하려고 시도 중
 -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 등은 日 Project Pax에 참여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송금, 환전, 역외 지급결제 등의 개선 효과 및 기술적 가능성을 점검

■ 송금비용 비교 (송금액 200달러 기준)



자료 : World Bank, Coinbase

■ CPN을 통한 해외송금 과정



자료 : Circle